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22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국제평화협력 담당관실	담 당 자	• 구미국제기구팀장 박서현 ☎440-3241 • 담당자 임미란 ☎440-324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 호놀룰루시 교류 증진, 20년 우정 더욱 돈독히
 - 유정복 시장, 호놀룰루시장 · 시의회 의장 만나 교류 협력 방안 논의 -
 - 자매도시 20주년 행사, 호놀룰루 항만 마스터플랜 설명, 재외동포청 유치 홍보 -

20년 지기 자매도시인 인천시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가 앞으로도 우호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맞아 호놀룰루시를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과 허식 시의회 의장이 12월 21일(현지 시간) 릭 블랭지아르디(Rick Blangiardi) 호놀룰루시장과 토미 워터스(Tommy Waters) 호놀룰루시의회 의장을 만나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와이주 오아후섬 남동부에 위치한 호놀룰루시는 면적 1,556km², 인구 35만 명의 하와이주 주도이자 가장 큰 도시다.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도시이면서 관광 · 레저산업이 발달한 세계적인 휴양도시이기도 하다. 인천시와 호놀룰루시는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이었던 지난 2003년 10월 인천시의 제안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내년에 자매결연 20주년을 맞게 된다.

양 도시는 자매결연 체결 후 자매도시 정상회의 참가, 2014 인천아시안 게임 개막식 참석,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상호 방문, 시의회 간 교류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16년에도 호놀룰루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날 양 도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양 도시가 앞으로도 계속 우정을 이어가면서 교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자매결연 20주년을 맞는 만큼 기념행사 개최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정복 시장은 “6년 만에 호놀룰루시를 방문했는데, 양 도시가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자매도시 20주년을 맞아 공무원 교류와 문화 교류 확대와 함께 기념 조형물을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하와이에 한인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한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릭 블랭지아르디 호놀룰루시장은 “자매도시 조형물 설치에 동의하고, 자매도시 20주년을 맞아 내년에 인천을 방문하도록 하겠다”며, “양 도시가 문화, 행사 등에 그치지 말고 경제, 통상 등 비즈니스를 비롯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면담에 이어 인천시 대표단은 최근 결정된 ‘2050 호놀룰루 항만 마스터 플랜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에 호놀룰루시의 계획을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폈다.

호놀룰루시 방문 후 유정복 시장은 실비아 장 루크(Sylvia J. Luke) 하와이주 부주지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천시와 하와이주가 향후 우호 협력관계 강화 및 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